

청소년 흡연실태조사에 있어서 뇨 중 니코틴 검출을 이용한 설문조사의 정확도에 대한 연구

심수정, 서흥관, 김철환, 이성희, 김윤진, 박민선, 신유철, 정은정

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

연구배경: 성인층의 흡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청소년층과 여성인구의 흡연율 증가는 전세계적 추세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마찬가지이다. 현재 청소년의 흡연율 파악은 비밀 보장이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문조사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고등학교생들의 정확한 흡연실태를 조사하고 설문조사에 의한 흡연율의 정확도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지와 뇨 중 니코틴검사를 함께 시행하였다.

방법: 2002년 4월부터 2002년 7월까지 서울시내 남자 인문계 고교 1개교와 여자 실업계 고교 1개교를 정하여 남학생 1, 2, 3학년 중 각각 3개반에서 전체 306명을, 여학생 2학년 7개반, 3학년 6개반에서 전체 325명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작성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뇨 중 니코틴검사를 함께 실시하여 설문지의 흡연율과 비교하고 흡연행태, 등을 각각 남녀별로 비교 분석하였다.

결과: 대상학생들의 흡연율은 남자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1, 2, 3학년의 설문지에 의한 흡연율은 14.9%, 20.4%, 22.5%였고 뇨 중 니코틴검사에 의한 흡연율은 26.6%, 38.0%, 29.6%였다. 여자 실업계 고등학교 2, 3학년의 설문지에 의한 흡연율은 22.6%, 23.9%였고 뇨 중 니코틴검사에 의한 흡연율은 46.6%, 35.4%로 전체적으로 뇨 중 니코틴검사에 의한 흡연율이 설문조사에 의한 흡연율보다 높게 나타났다. 설문조사에 의한 흡연율의 정확도는 두 조사 방법간 결과의 일치도로 Kappa값으로 나타내었으며 남자 인문계 고등학교 1학년은 0.27, 2학년은 0.46, 3학년은 0.75였고, 여자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은 0.33, 2학년은 0.44로 여학생보다 남학생에서, 학년이 높을수록 일치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.

결론: 뇨 중 니코틴검사의 결과를 기준으로 흡연율을 분석하였을 때 자기기입식 설문조사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설문조사의 정확성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에서, 학년이 높을수록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. 이는 대상자 자가보고에 의존한 설문조사의 한계를 보여주었고 특히 저학년의 경우와 여학생의 경우에는 설문조사는 바람직한 흡연율 조사방법이 아님을 알 수 있다.

중심단어: 청소년, 흡연율, 뇨 중 니코틴검사